◈며느리 권씨 열전 25-2

# 송려집 저자 배상협(裵相協,흥해 배씨 21世)의 부인 권씨 (검교공파 27世, 택인계 命岳의 딸)

배상협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으로 어린 시절부터 예법과 학문에 뛰어나서 11세, 조부 기일 예법을 완벽히 수행해 "지례동자(知禮童子)"로 칭송 받고, 12세에 대유학자 배상열(괴옹) 문하에서 『소학』을 배우며 '인(仁)'의 철학을 논했다.

그가 1차 과거 시험 향시에 합격후 본시험(예빈시)에 떨어지고 환향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하여,사덕(四德), 이기(理氣), 괘화(卦畫), 『홍범』 오행설 등 심오한 주제를 탐구하여 '속찬요' 등을 저술하니, 일찍이 스승 괴옹 배상열이 "대성할 인물"로 평가했으나, 조선 유학계의 한계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스승 배상열의 요절(31세) 이후 상심하여 병이 들고 결국 자신 또한 44세로 요절하면서 그 많은 글은 '송려집' 한권에 편린이 남아 전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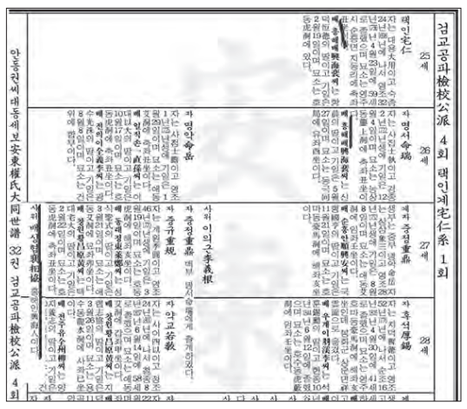
그의 묘비명(碑銘)에는 "세월이 흐르며 경전의 참뜻이 사라져 가니, 공의 깊은 학문을 아는 이 누구인가? 호애산(묘지)에 묻혔으나 그의 빛나는 저술은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

그는 조선 후기 학문적 천재성이 시대적 환경과 스승의 조기 죽음으로 완성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명문가의 계보, 유학의 심오한 이론, 그리고 미완의 저작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었다.

### 권씨부인에 대한 '송려집' 기록

부인은 안동 권씨(權氏)로, 명악(命岳,검교공파26세,택인계, 택인의 자)의 딸이며, 덕행이 아내의 도리( 德)에 부합하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함으로써 명성이 있었다. 두 아들 현린(顯麟)과 현봉(顯鳳), 그리고 세 딸(이학소·김시건·서욱렬에게 각각 시집감)을 낳았다. 현린의 세 아들 잔주(瓚周)·구주(球周)·무주(武周)는 모두 핵심 혈통(同樞)으로,의사공(義士公,배인길)의 후예이다.

(配安東權氏命岳女 德無以孝養舅姑聞生二男顯麟顯鳳三女李學韶金時健徐郁烈顯麟三子瓚周球周武周同樞出系義士公嗣)



배상협의 장인 권명악, 명학의 형수도 흥해 배씨, 모친도 흥해 배씨이다. 사위도 흥해배씨이니 대단한 인연소생이다.

### 권씨 부인 자손들

2-3세대 후손 찬주(瓚周)는 아들 1명(선정)과 딸 3명(김락호, 손정모, 황영하)을 두었다. 구주(球周)는 아들 2명(선수, 선부)을 두었다.무주((武周)는 아들 2명(선양, 선문)과 딸 1명(이응연)을 두었다.

관직 및 혼인 관계는 손방모의 아들 석기는 감역(監役,종9품,공사감독)을 지냈다. 김우한의 아들들 중재헌은 도사(都事,종5품),재정은 통정(通政,정3품)을 역임하였다. 선정의 아들 영태와 영복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영태→ 5남(동진, 동로, 동정, 동은, 동익),영복→ 3남(동혁, 동욱, 동찬)

4세대 이후 세부계보 각 방계별로 아들과 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혼인 관계(예: 장사학, 전병하 등과 결혼)도 함께 나타난다.

[예시]하자면 동진의 아들 3명: 용환, 인환, 석환, 동로의 아들 2명: 환종, 딸 1명(장사학에게 출가),이와 같이 배상협 가문의 계보는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후손들의 관직 및 혼인 관계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다. 다음표와 같다.

표

1세대

• 夫 배상협 婦 안동권씨 (권명악 딸, 安東權氏 命岳女, 검교공파 26世) ├─아들 2명: │ ├─현린(顯麟) │ └─현봉(顯鳳) └─딸 3명: ├─ 이학소(李學韶) (사위) ├─ 김시건(金時健) (사위) └─ 서욱렬(徐郁烈) (사위)

2세대: 현린(顯麟) 계통

• 顯麟(현린) ├─아들 3명: │ ├─瓚周(찬주) │ ├─球周(구주) │ └─武周 └─딸 2명: ├─ 孫邦謨 (사위) └─ 金遇翰 (사위)

瓚周(찬주)의 후손

• 善禎(아들) ├─永泰 │ ├─ 東進, 東魯, 東正, 東殷, 東翊 (5남) │ └─ 許 (1녀) └─永復 ├─ 東爀, 東旭, 東燦 (3남) └─ 權宗洛, 金珠洛, 柳成欽 (사위)

球周(구주)의 후손

• 善壽 └─ 永和 └─ 東極

2세대: 현봉 (顯鳳) 계통

• 顯鳳 ├─達周(아들) │ ├─ 善養, 善文 (2남) │ └─ 李應淵 (1녀) └─ 黃胤九 (딸)

3세대 이후 주요 인물

• 東進(永泰의 아들) ├─ 容煥, 寅煥, 錫熳 (3남) └─특기사항:《傳聞錄》편찬 관련 기록 보유.

• 金遇翰(顯麟의 사위) └─ 載攄 (都事), 載鼎 (通政), 載珣, 載聲, 載璐 (5남)

### 권씨 부인 (검교공파 27世) 내력

부인의 가계는 검교공파로 파의 특성(3세에서 분파)상 시조로부터 출발하여 본다, 대체로 지방 선비로 평범하게 영주 근방에 살아온 조상이나 14세 권정이 이성계 개국에 반대 안동 도목촌에 은둔하면서 본격적으로 안동, 봉화, 영주로 세거 지역이 된다.

여기서 동시대에 백죽당 배상지(栢竹堂, 裵尚志, 1351~1413)도 고려말 판사복사사(정3품)에서 안동 금계리 도목촌으로 은둔하고 그의 부인도 권희정(權希正, 좌윤공파16세, 문정공)의 딸이다. 조상은 고려 검교대장군 배경분(裵景分)의 7세손이다. 배상지의 부친 배전은 안동 일직의 손홍량의 사위, 배상지도 부인이 권씨이니 원래 왕도 개경인근 파주 출신이나 안동에서 절개를 지켜 선비로서 삶은 마감한다, 여기서 두 가문의 안동 정착의 스토리가 시작됨은 우연이 아니다.

녹동마을 뒤 호골산의 배상협과 부인 권씨묘. 비석도 상석도 없다. 조속한 건립이 요구된다. 배상협은 비록 서생이나 그의 위기지학의 선비정신은 흠모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고 그 부인 권씨의 행실도 모범적이다. 사진 배진섭

### 선비의 고장 영주

그리고 영주가 '선비골'이 된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여말의 충신 사복재(思復齋) 권정(權定, 검교공파 15世)을 일컫는 말이다. 권정은 공양왕 때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 예안 땅에서 은둔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달래는 마음에 반구정과 봉송대를 짓고 스스로 아호를 사복제(思復齊 : 고려를 사모하는 올 곧은 마음)라 했으니 비분강개가 오죽했겠는가?

태조 이성계가 승지로 불렀고, 태종이 대사간과 대사헌으로 연이어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고 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기사리(棄仕里)라 짓기도 했다고 한다.

예안의 권정이 영주 선비로 칭송받는 이유는 권정의 아들이 영주로 옮겨왔고, 후손들이 봉송대와 반구정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정은 안동과 영주 선비 모두로부터 충절의 표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휴계(休溪) 전희철(全希哲)은 조선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과에 급제해 벼슬이 상장군에 이르렀으나 어린 단종이 즉위 3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던지고 서른의 나이에 충북 옥천으로 낙향했다. 이후 세조 3년에 가솔을 거느리고 소백산 너머 영주 땅에 숨어들었다.

영주의 사학자들은 휴계 선생이 성삼문 등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고, 단종마저 강원도 영월로 귀양가자 영월과 가까운 영주(당시 지명은 榮川) 순흥땅으로 왔다고 전하고 있다. 휴계 선생은 영주에 숨어 살면서 돌을 쌓아 대를 만든 뒤 밤마다 관대를 갖추어 단종이 계신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고, 단종이 죽자 영월을 향해 통곡을 하며 삼년복을 입었다고 한다. 이로써 영주는 산비의 고장이 된 것이다.

### 권씨 부인 계보도

27권씨(부군배상협, 裵相協)-26명악(命岳, 1725-?, 부인일직손씨, 전의이씨)-25택인(宅仁, 1698-1756, 부인, 흥해배씨)-24임형(任衡, 1653-1689, 부인파평윤씨)-23상중(尚中, 1624-1707, 부인, 진성이씨)-22정호(廷豪, 자 수남, 묘 영주 호동)-21유경(有經, 무과 봉사, 영주, 호마동)-20광택(光澤, 참봉, 영주)-19억령(億齡, 습독)-18수영(壽永, 훈도)-17균(鈞, 선교랑, 참판김희주행장)-16경석(景石, 내시직, 영주)-15요(曜, 세종조 통훈대부, 보령현감, 묘봉화)-14정(定, 사복재, 이성계 개국 안동 도목촌 은둔, 태종 대사헌 수여 거부)-13현(顯, 부사)-12수영(守英, 중랑장) -11열(烈, 예빈동정, 종6품)-10척(倜, 검교공파파조, 검교대장군)-9춘각(椿恪)-8백서(伯서)-7진평(進平)-6진부(珍夫)-5공황(公晃)-4응화(應和)-3윤(綸)-2인행(仁幸)-1 시조(幸)

본 배상협건에서 양가의 가계가 상세한 것은 바로 교차검색의 결과이다, 이제 안동권씨 'AI족보 사업'도 이런 관점과 수단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8고조도이다. '나'를 중심으로 5대조 까지 친가,외가의 30명의 유전자의 집합체가 바로 '나'라는 것이다. 그것이 생물학적,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계약서 등에 대한 세무상식 ③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추밀공파 35世·삼덕회계법인대표

**III.세법상 거래 증빙 수취 의무 및 불이익 안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세법등에서 정한 관련 증빙이나 계약서등은 거래발생시 마다 당사자들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기본 원칙

모든 사업자는 거래 시 다음 중 하나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적격증빙 종류

| 종류 | 관련 세법 | 주요 발행자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자 |
| 계산서 | 소득세법/법인세법 | 면세사업자 |
| 신용카드매출전표 | 조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 가맹점 |
|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 |
| 간이영수증 | 미적격증빙 (제외대상) | 세무상 비용처리 불가 |

2. 수입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

| 수입금액 기준 | 장부작성 및 증빙 수취 의무 |
|---|---|
| 복식부기의무자 (3억 이상 / 특정업종 1.5억 이상) | 적격증빙 의무 수취, 미수취시 가산세 대상 |
| 간편장부대상자 (3억 미만) | 가급적 적격증빙 수취,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하나 주의 |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간이장부 작성, 증빙 수취 의무 없음 (추계 과세) |

3. 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및 가산세

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세법 §116, 소득세법 §160)

●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사업 관련 비용이지만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인정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39)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공제 불인정

③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허위 발급 가산세

| 항목 | 가산세율 |
|---|---|
|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 공급가액의 1% |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공급가액의 2% |
| 세금계산서 전자발급 미이행 | 건당 1만원 |

4. 관련 세법 조문 요약

| 법령명 | 주요 조문 | 내용 요약 |
|---|---|---|
| 부가가치세법 | §32~§39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가산세 규정 |
| 소득세법 | §160 | 사업자의 지출 증빙 수취 의무 및 미수취 가산세 |
| 법인세법 | §116 | 법인의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 및 미수취 가산세 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 §121~122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시 소득공제 혜택 |

5.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①세금계산서 수취는 발행일자와 공급시기 일치 여부 확인 필수

②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간 거래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음

③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

④증빙 수취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

(다음호에 계속)

#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 제3장 뿌리에 대하여

### 1. 다물(多勿)

"다물'이란 고구려의 연호요 건국이념이었다. 그 뜻은 '삼국사기'에 '려어위복고구토왈다물(麗語謂復古舊土曰多勿)이라 했으니, '옛 땅을 다 되 물리다', '옛 땅을 다시 찾자'이다. 5세기경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는 여러 제후국을 거느리고 동아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보한 나라였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에 '다물'을 국시(國是)로 삼고 단군조선의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多勿) 매진한 한민족의 얼이 살아있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이었다.

뿌리교육(역사와 국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이 땅의 5,000년 이 전의 역사적 유물은 그렇게 많지만, 역사기록은 삼국사기를 기점으로 2,000년에 머무르고 만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매년 10월 3일은 개천절(開天節)이다. 우리 한민족이 개국한 날이다. 그날은 지금부터 4,343년 전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과 중국은 없는 역사도 날조해서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사료와 유물들이 있음에도 지금의 국사교육은 왜 미온적이기만 한 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신라의 한반도 통일(한민족 통일)은 순수한 자력이 아닌 당(唐)나라의 외세의 힘을 빌린 통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조상들은 그 대가(代價)로 대륙의 우리의 땅을 내어 주어서, 반도 안에만 머물러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부끄러운 역사 때문이리라. 수십 세기를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단 한 번 고려 말에 중국의 원. 명의 교체시기의 혼란기를 노려 최영장군이 대륙정벌을 실행코자 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또한 두 장군의 생각의 차이로 빚어진 고려의 비극으로 끝났다. 1392년 7월 16일 개성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였고 500년의 이씨조선이 이 땅이 주인이 되어 27명의 왕들(명군과 성군, 폭군)이 다스렸지만 이조말, 1910년에 결국 국운이 쇠하고, 이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나라에 노략질과 도적질을 일삼아 오던 왜구의 후손인 일본에게 이 강토를 송두리째 내어주질 않았던가!

암울하기 말할 수 없는 일제의 강점기 36년 동안 이 나라는 주권도, 강토도 없이 마침내는 내 나라말까지 쓰지 못하고,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朝鮮民事領)을 발표하여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씨를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이른바 일제의 황민화(皇民化)로 이듬해 8월까지 322만호로 대한인의 80%가 성씨를 바뀌지 않았는가?

세상(물질)의 현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다.

나라도 없고, 내 말도 없고, 성씨도 없는 이 민족은 뿌리와 얼을 잃어버린 채로 36년을 살아오다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천지이수(天地理數)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았으나 오랜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일제의 교육, 행정제도 등을 답습한 채로 대한민국 제 1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국운이 불행하여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한 민족간의 이데올로기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잿더미로 변하고 말지 않았던가?

그 결과는 오늘까지 단일 민족인 우리가 서로 총뿌리를 동포의 가슴에 겨냥하여 155마일 휴전선에는 잠 못 드는 밤이 지루하도록 이어지고 있지를 않는가!

그러함에도 이 민족의 면면히 흐르는 근면, 성실, 정직함이 반세기 동안에 온 세계가 경탄하는 오늘을 재화를 창출하고야 말았다.

우리의 불행한 근대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먹고 살기에 급박한 생존경쟁을 가져오게 하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야만 하는 마음의 조급과 스트레스로 우울의 깊은 늪을 헤매는 황량한 정신문화를 탄생케 하였다.

독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한민국)의 얼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간에 일제에 짓밟히고, 전쟁의 포화에 놀랐던 한민족의 얼을 재발견 하여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극찬한 것처럼 인류사에 밝은 동방의 등불로서 사명을 다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얼 속에는 세계인류를 구원할만한 가르침이 있다. 이 지구촌을 환하게 비쳐주는 태양과도 같은 선현(先賢)들의 얼이 우리들 모두의 가슴 안에서 용트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모두 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매진하는 이 때에 우리 한민족의 정신유산이 아니고는 인류를 바로 인도할 가르쳐 줄 교과서는 없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은 이미 다물(多勿)운동, 다물정신(多物精神)이 있어 왔다. 고구려 시대 이후로는 활성화 되질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 찬(얼 꽉 찬) 사람들에 의하여 그 맥을 이어 왔다. 다물(多勿)이란 단지 우리의 옛날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만 의미하질 않고, 우리들 정신문화 안에서 옛 영토와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한민족의 얼을 다시 찾자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차린다는 뜻은 질서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옷차림, 상차림, 정신차림은 모두 그 순서와 격식이 있다는 말이다. 윗옷을 바지로 입는 사람은 없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찾아서 제 자리에 놓는다는 의미이다. 군인의 첫 기본자세가 차렷인데, 만약 군인이 이 차렷을 못하면 얼차례를 받는 것이다).

아래의 몇 가지는 우리가 다물(多勿)정신을 반드시 되찾아서 민족의 생각과 사상의 구심점으로 삼아 후손에게 길이 이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첫째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우리들의 조상들이 아시아의 동쪽에 그 뼈를 묻은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들의 국력으로 못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본다. 지금의 국제정세로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국경의 저편에 우리의 옛 땅을 되돌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저 요동의 만주벌판 일대를 비롯하여 사방 수 백리에 걸쳐 대한민족이 살았었고, 그들의 뼈 또한 그곳에 잠들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깨닫고 또 후손에게 가르쳐서 그 기상과 정신을 다시 찾고 이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